

제1회 대한민국 폴란드 영화제

www.festiwalwislal.pl



비스와

서울

2020년 12월 29~30일

www.mojeekino.pl

어머니를 위하여, 2019

어머니를 위하여”는 다큐멘터리 감독 마우고자타 이미엘스카의 최초 장편영화로, 두 세계 (소박한 삶을 사는 올라의 세계, 여자 소년원의 세계)를 보여준다. 실화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기억 속 세계를 객관적으로 묘사한다.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관객은 17세 소녀의 기억이 때로는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. 또한 어린 시절을 간혀 산 사람의 관점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. 관객은 올라의 인생을 점점 더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며, 어머니를 찾는 것에 대한 집착은 그녀의 과거와 대립된다.감독은 다큐멘터리 학교 재학시절 동감과 감정이입을 자아낼 수 있는 드라마적 요인을 익혀 제작 과정에서 촬영감독으로 하여금 영화 속에서 이들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. 토마시 나우미우크의 영상 기법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잔인한 진실이 서로 충돌함을 보여주며, 조피아 도말리크(올라 역)의 연기는 관객이 그녀의 상황에 빠져들게 만든다.

코치의 딸, 2018

뜨거운 여름, 마치에이 코르네트는 17세 딸 빅토리아와 함께 폴란드를 여행한다. 수년 간 두 사람은 항상 함께였다. 빅토리아는 아버지의 눈이었으며, 딸이었으며 동시에 그의 큰 자부심이었다. 그는 항상 그녀가 최고가 되기를 바란다. 또한 그녀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세계의 전부이다. 아버지와 딸은 테니스 대회를 참가하게 된다. 유망한 경쟁자 이고르가 그들에 합류하게 되고 마치에이 코르네트는 훈련을 시작한다. 세 사람은 모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래된 뱀을 타고 긴 여정을 시작하는데...

자금지원

Ministerstwo
Kultury
i Dziedzictwa
Narodowego.

주최기관



스폰서

